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column 칼럼	엑스포와 문화예술 조정윤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issue 이슈 1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최동민 / 에코액션 포레스트 대표
issue 이슈 2	예술을 위한 기술, 기술을 위한 예술 김태희 / 영산대학교 게임VR학부 교수
issue 이슈 3	예술로 실천하는 돌봄과 나눔 윤성호 /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화+AI	예술의 사회적 가치, 검색하기 또는 대화하기 김해보 /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세계는 지금	창조도시 요코하마와 지역민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드는 코가네초 한태호 / 코가네초 국제교류 프로그램담당
정책보고서 훑어보기	부산 오페라에 대한 진지한 걱정과 올바른 기대 강창일 / 부산금정문화회관장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3. 01. ~ 03.

2023년 새해를 여는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20호는, 문화예술계가 2030부산 세계박람회의 '지속가능한 삶', '인류를 위한 기술', '돌봄과 나눔'이라는 3가지 주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담아 보았습니다.

문화+(더하기)코너에서는 챗GPT가 생각하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일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정책 보고서 톺아보기'에서는 지난 해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연구 중 하나인 '부산 오페라 대표 축제 구상 연구'의 리뷰를 실었습니다.

column 칼럼

03 엑스포와 문화예술

- 도시의 대전환을 꿈꾸는
엑스포 개최와문화정책의 전환
조정윤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issue 이슈 1

07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최동민 / 에코액션 포레스트 대표

issue 이슈 2

10 예술을 위한 기술, 기술을 위한 예술

김태희 / 영산대학교 게임VR학부 교수

issue 이슈 3

13 예술로 실천하는 돌봄과 나눔

윤성호 /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화+AI

16 예술의 사회적 가치, 검색하기 또는 대화하기

김해보 /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세계는 지금

20 창조도시 요코하마와 지역민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드는 코가네초

한태호 / 코가네초 국제교류 프로그램 담당

정책보고서 톺아보기

23 부산 오페라에 대한 진지한 격정과 올바른 기대

강창일 / 부산금정문화회관장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7 2023. 01. ~ .03



엑스포와 문화예술

- 도시의 대전환을 꿈꾸는 엑스포 개최와 문화정책의 전환 -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도시의 미래 대전환, 엑스포 개최

필자는 영국 런던 외곽 Crystal Place라는 곳에서 20대 후반을 보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지명의 유래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엑스포와 건축물, 도시의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851년 제1회 영국 박람회의 개최지인 크리스탈 팰리스에서는 17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왜 런던이 세계에서 산업과 문화에 있어 가장 매력 있는 도시인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¹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영국박람회로 불리는 엑스포(EXPO)의 개최와 함께 도시 미래의 대전환을 이루었으며, 문화예술 발전에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프랑스 파리(Paris)와 미국의 시카고(Chicago)가 대표적이다.



출처 |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1 크리스탈 팰리스는 1851년 제1회 영국박람회의 개최 회장으로 사용된 건축물로 산업혁명 초기의 기술 발전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인해 유명해졌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자연광을 활용하여 전시품들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들을 화려하게 보여주었다. 당시 유럽 사회에서 보기 드문 혁신적인 건축물이었기에 전 세계 많은 예술가가 이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창작했다고 한다. 현재는 공원 내부에 건축물의 자취와 기록만 있어 Crystal Place라는 지명으로도만 존재하고 있다.

엑스포 개최와 함께한 파리의 문화

문화정책을 연구하는 파리의 현지 연구자에게 필자는 ‘문화예술의 도시, 파리의 문화 지형도를 바꾼 역사적 사건’이 궁금해 묻은 적이 있다.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와 에펠탑, 1989년 프랑스혁명 200주년 기념을 기념하는 그랑 프로젝트’라는 대답이 질문과 함께 바로 돌아왔다. 파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랜드마크인 에펠탑이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의 레거시(legacy)란 점은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다. 파리 만국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산업과 문화를 선보이는 자리였고, 인류가 엑스포를 통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프랑스는 엑스포를 통해 전 세계에 프랑스 문화의 우수성을 발신하며 차기 엑스포 개최에 박차를 가한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가 그런 경우인데, 박람회의 걸작은 오늘날 프랑스 3대 미술관이라 칭송받는 오르세 미술관이다. 박람회 당시 호텔과 기차역으로 이루어진 건물은 박람회 전시장으로 문을 열었다. 엑스포 이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다가 1986년 오르세 미술관으로 탄생하는데, 엑스포 개최 시기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19세기 미술 작품을 소장·전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폐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재생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받고 있다. 오르세 미술관은 에펠탑과 함께 파리 만국박람회의 또 다른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시카고의 공공 미술 발전에 기여한 엑스포 개최

시카고 엑스포는 프랑스 파리에 이어 1893년 기념비적인 박람회 개최를 통해 미국의 첨단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넘어, 미국의 예술을 지구촌 사람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자리로 만들었다. 특히, 오늘날 시카고의 미술 발전은 엑스포 개최를 통해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시카고 박람회장으로 쓰였던 석조건물의 공간은 이후 미술학교와 전시장으로 쓰이게 되는데, 오늘날 뉴욕 메트, 보스턴 미술관과 더불어 미국의 3대 미술관이라 불리는 바로 시카고 미술관(The Art Institute of Chicago)이다. 미술관의 근원은 미술과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고 있는 시카고 미술학교(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로 이곳에서 배출되는 인재를 오늘날 공공 미술의 성지인 시카고 미술 발전의 양분이 되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시카고는 다양한 건축물과 벽화, 조각 등의 공공 미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다. 공공 미술의 도시 시카고의 도시 전환은 1893년 엑스포를 통해 그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2030 부산 엑스포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 국민의 염원인 2030 부산 엑스포 개최는 단순히 부산이라는 도시의 대전환을 넘고 있다. 국가 차

2 프랑스혁명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그랑 프로젝트(Grand Projects)는 프랑스 정부에서 추진한 대형 문화 공간 건립 정책이다. 바스티유 오페라 하우스를 비롯하여 루브르 박물관 광장의 피라미드, 라 데팡스의 신개선문, 프랑스 국립도서관 등 20세기 말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건축 사업으로 오늘날 파리의 문화 지형도를 형성하였으며, 당시 미테랑 대통령의 대표적인 문화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에서 지구촌 미래 의제에 대한 혁신적 대응을 발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있다. 2030 부산 엑스포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해”라는 주제에 3가지의 핵심 가치를 강조한다.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 Sustainable living with Nature> <인류를 위한 기술: Technology for Humanity> <돌봄과 나눔의 장: Platform for Caring & Sharing>인데, 묘하게도 이 3가지 핵심 가치는 오늘날 전 세계적인 문화정책의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2030 부산 엑스포 핵심 가치는 문화정책의 주요 과제

최근 몇 년 서구사회 문화정책의 가장 큰 화두는 ‘문화예술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이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과제인 환경, 기후변화에 문화예술이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이 가진 복원성(resilience)이 인류가 스스로 파괴한 환경 복원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세계 환경·문화예술 활동가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통한 실천적 활동과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향후 부산의 문화정책 역시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을 핵심 가치로 하는 2030 부산 엑스포에 보조를 맞춘 실천적 대응이 필요하다.

코로나19는 문화와 기술 융합이라는 문화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2030 부산 엑스포가 추구하는 <인류를 위한 기술: Technology for Humanity>은 문화 분야에서도 예술과 기술의 실용적 접목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줄 것이다. 사실 예술과 기술의 접목은 더 이상 새로운 트렌드가 아니다. 2015년 클라우드 슈밥이 제시한 개념인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과학 기술과 예술 융합 기반의 새로운 예술 형식이 출현하였다.³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는 그동안 축적되어 온 다양한 실험과 시도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시기이다. 문화예술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시대 혁신을 이끌어야 할 때가 2030 부산 엑스포 개최와 함께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이다.

포용과 연대, 공동체 회복의 도시 대전환을 꿈꾸며

2030 부산 엑스포는 포용 도시(Inclusive City) 부산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장(場)이 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넘어가, 친구 좋다는 게 뭐꼬! We are not others, what are freinds for!’라는 부산 사람들의 정신이 <돌봄과 나눔의 장: Platform for Caring & Sharing>의 핵심 가치로 구현될 것이다. 경쟁 도시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아드(Riad)보다 부산이 가진 강점이 바로 ‘문화적 다양성에 기반한 포용 도시’라는 점이다. 최근,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과 지역사회에 대한 결속력을 강화하며, 지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산은 세계 문화정책의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부산 엑스포 개최는 부산이 주도하는 문화정책 이슈를 세계로 발신, 실천하는 계기가

3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4차 산업의 특징인 융복합, ICT 활용,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4차 산업의 창시자 클라우드 슈밥은 인간은 새로운 문화적 르네상스를 맞이할 것이라 예견하였다.

될 것이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인 '포용과 연대, 공동체 회복'이야말로 바로 도시의 대전환을 꿈꾸는 2030년 부산 엑스포의 유산이 될 것이다.



출처 | 2030부산세계박람회 홈페이지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최동민
에코액션 포레스트 대표



“예전에는 그래도 동네가 시끌시끌했지요.”

2018년 부산 원도심의 작은 초등학교 하나가 문을 닫자 마을은 급격하게 활력을 잃었다. 교문 맞은편 서터문이 반쯤 닫힌 자신의 가게에 걸터앉아 말하던 권오영 아저씨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 묻어있었다.

2년 전 문 닫힌 그 초등학교에서 기후와 관계, 공동체 위기 극복 문제를 예술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 문화 예술교육 프로젝트가 실험되었다. 아직 문화 예술교육을 위한 전용 공간이 없는 부산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전용공간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시작된 프로젝트였다.

부산의 10여 명의 예술가들과 함께 6개월의 준비과정과 한 달간 700여 명의 어린이, 시민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끝으로 다시 문을 닫게 되었을 때 “한동안 사람들이 오고 가니 참 좋던데, 또 이래 잘만 들어놓고 없앤다 하니 참 많이 섭섭하네요.”라고 말하던 권오영 아저씨는 그 학교 졸업생이기도 했다.

‘경제유발효과 61조 원, 고용 창출 효과 50만 명, 세계박람회/올림픽/월드컵 3대 메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국가’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와 문구들이 2030 부산 엑스포의 예상 효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메가 이벤트의 성공적인 부산 개최가 현실이 된다면 그 효과와 함께 한 사람의 부산 시민으로도 무척 자랑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자연과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슬로건 중 하나가 눈에 띄었고, 스멀스멀 왠지 모를 작은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우리 속담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처럼 이런 큰 이벤트가 들고나간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삶이란 무엇일까? 무엇이 가능케 하는 것일까?라는 물음표도 생겨났다. 이렇게 작은 학교, 작은 공간 하나가 들고 나가도 마을 주민들에게는 크게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안감

다큐멘터리 <상계동 월드컵>을 떠올렸다. 88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둔 1986년.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부끄럽다는 이유로 달동네 철거와 강제이주를 당한 철거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때 88올림픽의 슬로건은 화합과 전진이었다.

많은 국민들을 붉은 옷과 함께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든 2002 월드컵 때는 일회성 대규모 문화행사만이 조명받았고, 수많은 소극장의 조명은 꺼졌다. '제발 월드컵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한탄과 함께 작은 공연과 축제는 모두 Be the Reds! 모두 하나가 되는듯했던 월드컵에 자리를 내어주고 밀려나야만 했다.

과거와 비교해 지금의 우리는 어떨까? 엑스포 기간에 각종 공연이 열릴 오페라하우스는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고도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시끌시끌하기만 한데, 부산 영화 생태계의 다양성 지켜줄 중소형 영화제의 예산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7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과 여러 이슈 속에 마쳐진 BTS의 유치 지원 대형 콘서트 뒷면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던 부산 인디음악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화려한 오페라하우스와 대형 영화제만으로 부산의 문화가 풍요로워질 수 없다. BTS와 이정재가 가장 빠르게 전 세계에 우리를, 부산을, 부산 엑스포를 알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물음표

부산에서 태어나 40여 년 넘게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이렇게 떠들썩한 2030 엑스포에 대한 내용도 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다. 부산 사람이 어째 그럴 수 있나? 유치되면 너도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엑스포만을 바라보고 살 필요가 있을까?

각자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작은 일들이 존중받고 그 작은 의미들이 하나하나 모여질 때 함께 오래도록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삶이 아닐까?

필자는 최근 10여 년 동안 기후환경과 관련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처음엔 환경에 대한 예술가들의 걱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가 차츰 기후변화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 사회의 단절된 관계들을 정상적으로 다시 연결하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 그 폐교에서 열린 프로그램 중 하나를 소개하겠다. 이 작품은 1901~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기온 변화를 나타낸 Warming Stripes(By Ed Hawkins)를 모티브로 급격하게 빨라지는 기후변화를 좁아지는 터널로 표현하고, 가파른 평균대를 건너며 온몸으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는 참여형 설치작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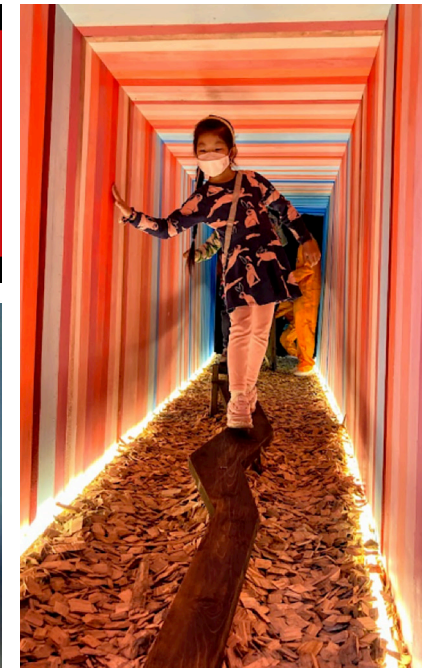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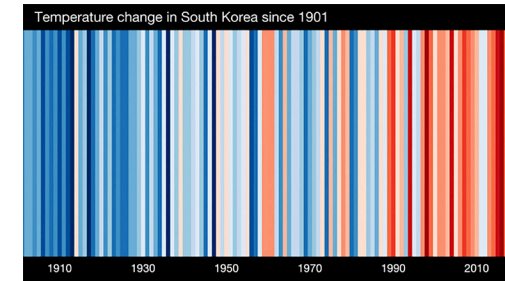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해졌지만, 그 이면에 기후 위기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낳았다. 위기는 있는 자보다 약한 자에게 더욱 잔인하기 마련이다. 기후 위기의 평균대를 위태롭

게 건너던 어린이들, 힘겹게 건너다 포기하고 돌아가던 할머니들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느리지만 문제를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감,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나누고자 했다. 이런 것들은 단 한 번의 행사, 대규모의 예산, 유명한 그 누군가의 힘만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지역의 여러 예술가들, 활동가들, 주민들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의 힘은 그런 것이라 믿고 있다

2015년 UN 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DGs를 의결했다. 이는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그 슬로건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다'.

'널 알게 된 이후 ya 내 삶은 온통 너 ya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별'이라는 BTS의 노랫말처럼 그 소외되지 않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하고 존중받는 우리 사회라면 성공적인 '2030 부산 엑스포'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자리할 것이다. 그리고 기후위기의 평균대를 기우뚱 건너 이서진 어린이도 삶의 평균대에서는 휘청거리지 않고 잘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1900년대 푸른색으로 표현되던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이 2020년에 가까워 질수록 짙은 붉은색이 중첩되어 표현되고 있다. 구태경, 황경호 협업작품 | 사진 : 최동민 / 이서진 동양초등학교 3학년

예술을 위한 기술, 기술을 위한 예술

김태희

영산대학교 게임VR학부 교수

기술은 예술을 확장할 수 있다.

그림을 그리려면 붓과 같은 도구, 물감과 같은 재료가 필요하다. 어떤 붓을 가지고 어떤 물감을 쓸 것인가와 같은 작가의 선택은 미술의 결과물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예술의 결과물에는 작가의 선택과 함께 그 도구와 재료의 흔적이 그대로 녹아들게 된다. 예술로부터 도구는 분리하기 어렵다.

컴퓨터는 프로그래밍에 따라 기능을 달리하는 유연한 도구이다. 문서 편집기도 될 수 있으며 악기도 될 수 있는 등 변신을 거듭할 수 있다. 그래서 컴퓨터는 사용하는 사람의 창의적 역량에 따라 그 효능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하드웨어의 발달과 함께 컴퓨터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컴퓨터를 통하여 메타버스와 같이 가상의 세상을 창조하고 인공지능과 같이 사람이 가진 알고리즘을 모방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가 예술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것은 예술에 있어서 실험적 가능성을 크게 열어주는 것이라 하겠다. 기술은 예술을 확장할 수 있다.

인류를 위한 기술, 인공지능

인류 진보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인류를 위한 기술을 생각하면 인공지능을 들 수 있다. 요즘 인공지능 분야는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성공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의 탄생과 함께 나타났으며 이제 하나의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갑자기 사람스러워진 것이며, 생성형 AI는 당혹스러울 만큼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당혹스러움을 겪는 것은 아직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고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예술을 통하여 많은 실험을 한다. 새로운 도구와 재료, 새로운 생각과 현상을 두고 실험하고 실험하여 그 속성을 파고 들어간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새로운 기술을 두고 이를 더욱 깊이 맥락화하고, 우리의 삶 속으로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하여 예술가들은 실험을 거듭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에서 찾을 수

있는 예술에서 중요하게 다룰 주제는 적지 않으며 사소하지도 않다. 예술은 기술을 이해하고 우리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술은 무엇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표현의 문제는 오랫동안 깊이 다루어져 왔다. 인공지능에서도 '표현'의 문제가 있다. 인공지능이 언어를 구사할 때 그 의미를 알고 말했을까 또는 아닐까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chatGPT는 인공지능을 향한 이런 의심을 잠재우는 듯하다. 맥락을 잘 파악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chatGPT는 풍부한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하여 터득한 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종래의 인공지능과는 다르게 의미의 뿌리가 튼튼한 점도 있다. 예술에서 오랫동안 다루어온 표현에 대한 담론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인공지능 발전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chatGPT와 같은 우수한 인공지능도 결국은 컴퓨터 속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 인간이 이러한 지능을 가지는 데에 몸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chatGPT는 몸이 없는 지능이다. 사람의 몸에서 정신의 역할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분리하여 컴퓨터 속에 넣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지능은 태어나서부터 몸을 통하여 끊임없이 세상과 교류하며 쌓은 의미와 맥락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의 인공지능은 컴퓨터에 들어있으며, 어떤 컴퓨터에 들어있는지에 상관없으므로 의미 있는 몸은 아직 가지지 못하였다.

예술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인공지능

몸이 없는 인공지능은 언제 어떻게 한계가 올 것인가? 이러한 담론 또한 예술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의 예술은 오랫동안 몸을 탐구해 왔으며, 몸과 세상과의 관계, 공간 속의 몸에 대하여 깊이 성찰해 왔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몸을 가지고, 몸이 공간을 만나면 지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술가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지능로봇은 몸을 가진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이 몸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논리적이거나 알고리즘 영역의 문제만은 아니다. 몸을 이루는 재료와 구조는 소프트웨어 기능과 상호 작용하여 로봇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인 인공지능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를 품고 있는 몸 또한 로봇의 기능 수행에 일조한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잘 짜면 몸의 기능을 줄여도 같은 일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몸을 잘 만들면 프로그램의 분량을 줄일 수도 있다. 이것을 인간에 비유하면 마치 머리를 잘 쓰면 몸이 덜 움직여도 되며 몸을 잘 움직이면 머리를 덜 써도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하드웨어인 몸의 기능은 서로 호환이 가능하며 서로 구분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예술에서 여전히 오랜 담론의 연장선에 있으며 그러한 담론은 인공지능의 발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개발에서 만나는 선택의 기로에서 그 결정에 대하여 바람직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개발에서 난관을 만났을 때 그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술이 기술을 만나는 폭은 넓고 깊다 할 수 있다.

융복합 예술을 위해서는

부산은 바다와 산을 가진 물류의 허브 도시로서 다양한 사람과 문화가 왕래하는 다이나믹한 도시이다. 역동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흥미로운 다양성을 가져 활발한 문화활동이 자리잡을 수 있는 여건을 가졌다. 또한 역사성과 함께 많은 스토리를 함축하여 장소적 내러티브 또한 풍부하게 가졌다. 기술은 예술을 도와 부산이 보다 흥미롭게 드러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에도 많은 융복합 예술 지원 활동이 있음에도,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융복합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예술가들의 융복합 예술활동이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을 두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므로, 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기술을 예술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인문학적 연구와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인들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전시와 포럼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부산의 아이들이 기술을 이해하고 기술을 예술적 감수성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 교육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부산은 국제화가 어울리는 도시이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외국의 작가와 학자들이 부산을 다녀가며 부산에서 활발한 토론과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은 많은 부분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이루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의 문화활동이 생산적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 융복합 예술에 기반한 자생적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은 앞에서 열거한 전시와 포럼, 교육과 국제화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이다.

예술로 실천하는 돌봄과 나눔

윤성호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파급효과를 일구어내는 세계엑스포

2030 세계엑스포의 유치전이 뜨겁다. 이번 세계엑스포의 3가지 주제가 첫째, 지속가능한 삶, 둘째, 인류를 위한 기술, 셋째 돌봄과 나눔이라고 한다. 일반론으로 월드 엑스포는 참가자들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발전시키는 장으로 볼 수 있다. 미래를 위한 해결책 및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엑스포의 초기 성격은 제국주의의 프로파간다 수단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긴 시간에 걸쳐 그 성격이 변화하여 왔는데, 현재는 세계엑스포는 참가자들에게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 교류와 이해 증진에도 기여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들의 인식 차이와 문화적 장벽을 해소하고, 지구촌 전체의 협력과 발전을 이루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세계엑스포의 역사를 간략히 되짚어보면, 1851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첫 번째 월드 엑스포인 '크리스털 팰리스 전시회'에서 시작되었다. 이 전시회는 산업혁명의 발전과 함께 기술과 혁신을 선보이고 국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평가한다. 이후 에디슨, 에펠탑, 월드와이드 웹의 착안, 가상현실의 아이디어 제공 등 현대의 기술발전의 초기 모델을 선보였고, 인류가 직면한 환경·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도 했다. 특히 2000년에 열렸던 독일 하노버 세계엑스포의 주제는 "인류의 발전과 함께하는 지구촌 문제"였다. 이 세계엑스포에서는 환경, 에너지, 첨단 기술,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시가 있었다.

세계엑스포는 단순한 전시행사를 넘어 인간과 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문화적 결과물을 선제적으로 선보임으로써, 상당한 국제적 파급효과를 일구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문화예술분야에서 세계엑스포를 준비하고 맞이하려는 노력에 참여하는 것은 타당할 뿐 아니라 필수적이다. 그것도 부산에서 등록엑스포를 유치하는 것은 문화예술적 돌봄에 있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돌봄의 도시, 부산

역사상 부산은 한국에서 1876년 최초로 개항하여 근대를 이끌어가는 도시였고, 일제강점기의 수탈 시대와 처참한 내전인 한국전쟁을 거쳐오면서 한국 국민의 피난처이자 전쟁피해자들을 돕는 근대시대의 돌봄의 기점이자 근거지였다. 전쟁고아와 장애인, 전쟁미망인 등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부산으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종 해외원조기관들이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경우 또한 상당하다. 최저 빈곤국가였던 1950~60년대의 부산은 전국에서 밀려드는 상처받은 자들의 돌봄도시였다. 눈부신 경제성장을 일구어내어 경제적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의 위상은 돌봄도시 부산의 역할이 없었으면 성취하지 못할 위상일지도 모른다. 최저빈곤국가에서 발전하여 세계엑스포 유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는 부산은 돌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제시하여야 한다.



한국전쟁 직후 부산을 재건하기 위해 힘썼던 리차드 위트컴 장군의 사진. 메리놀 병원 건립 등 수많은 원조활동을 수행한 미군 장교였다.

문화예술적 돌봄

돌봄이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협소한 의미로써 ‘돌봄’은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 생계유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확대된 의미로써 ‘돌봄’은 인간생활의 기본 영역을 유지 보전하는 것으로 본다. 가장 넓은 의미의 돌봄은 사람과 생물, 그리고 환경 전체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 전체를 말한다.

이중 확대된 의미로써 ‘돌봄’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과 돌봄 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확대된 의미로써 ‘돌봄’의 영역은 인간생활의 기본 영역을 토대로 한다. 이에는 기초소득, 건강, 주거, 교육, 일자리, 문화 등이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돌봄이라는 용어가 정책적으로 복지를 대신하기 시작했고, 기초생활돌봄, 건강돌봄, 주거돌봄, 교육돌봄, 일자리돌봄, 문화돌봄 등을 인간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상당한 노력성이 투입되고 많은 성과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익숙하지 못한 영역의 돌봄이 문화적 돌봄이다. 문화예술을 통한 돌봄은 초기 치유활동부터 현재 사회적 관계 형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을 수행해왔다. 문화예술활동이 가지는 기본적인 정체성 중 하나가 사회관계임을 감안할 때, ‘돌봄’이라는 용어를 적시하지 않아도 문화예술활동은 사람과 사회를 돌아보고, 보듬고, 표현하고, 공감하며,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활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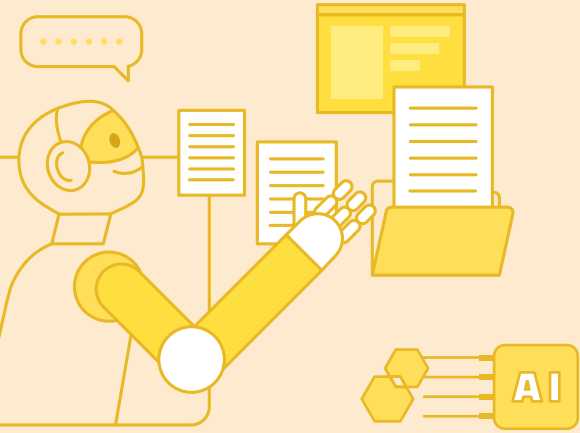
문화예술을 통한 돌봄의 사례는 적지 않다. 부산문화재단에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문화돌봄활동에 해당해왔다. 일례로 2019년에 시행했던 ‘수정아파트 프로젝트’는 도시재생과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고령층 돌봄서비스가 함께 뒤섞인 결과물이다. 이러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공간을 재편하고, 문화예술을 교육하여 시민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각종 문화돌봄활동의 공통적인 방법이자 목적이다.

한국의 돌봄의 기원(origin) 도시 부산에 대한 서사와 부산에서 수행한 문화예술을 통한 돌봄 사례들을 체계화하여 적극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세계엑스포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부산 세계엑스포의 유치는 문화적 돌봄이 생성되고 활성화하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돌봄의 문화, 문화예술의 돌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확산시키는 촉발제로써 이번 2030 월드엑스포를 준비하는 바람이 크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 검색하기 또는 대화하기

김 해 보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챗-GPT가 답하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부산문화재단에서는 2021년에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조사연구』(조정운 외, 2021) 보고서를 발간하고 <건강과 치유>, <고령화 대응> 등 7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2022년에 정신건강문제, 세대갈등, 지역갈등 등 <13대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문화예술의 역할 확대와 평가모델 필요성을 강조한 『사회문제와 문화예술정책』(정보람 외, 2022)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외에도 유사한 연구결과들이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해 예술가들의 활동기회도 넓히고 공적투자의 정당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란 무엇일까요? <문화>도 <예술>도 <사회>도 <가치>도, 어느 것 하나 논쟁적이지 않은 게 없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논쟁으로는 답을 낼 수 없을 듯하여, 요즘 핫한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술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지닙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적 이해와 감상 촉진:** 예술은 다른 문화, 생각, 관점을 알리며, 이세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감과 동경 심리 촉진: 예술은 감정을 일으키며, 다른 사람의 경험과 공감할 수 있게끔 돕습니다. 이는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연결과 동경심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주제 전달과 변화 도모:** 예술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표현하고, 사람들의 사고를 자극하여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규범을 도전하고, 정의와 평등을 주장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 **정신 건강 촉진:** 예술을 즐기고 참여하는 것은 삶에서 여유와 영감, 목적감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 **경제적 영향:** 예술은 직업 창출과 문화적 행사를 통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술은 이해, 공감,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고 개인적 성장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 있는 분야입니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가?” 에 대한 챗-GPT의 답변

‘하이젠버그 원리(Heisenberg Principle)’와 예술의 가치

사실 수많은 연구자들과 정책가들이 문화예술의 가치를 모델링하고 측정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가치를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투자의 정당성이 지속적으로 의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문화의 정의만큼이나 다양하고 예술의 정의만큼이나 논쟁적인 모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Understanding the Value and Impacts of Cultural Experiences - A literature review』(John D. Carnwath·Alan S. Brown, ACE, 2014)이나 『예술의 가치와 영향연구 : 국내외 담론과 주요 연구결과 분석』(양혜원 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에서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챗-GPT는 “가치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공개적인 토론과 토의를 통해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수렴, 분석하고...교육과 문화적 활동을 통해 가치의 중요성과 함께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법률과 제도를 통해 가치를 보호하고 유지”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기계의 대답을 인간이 종합하면, 예술의 가치는 그것을 인식하는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정책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가요?

독일의 문화경제학자 Arjo Klamer는 “재화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측정방법의 채택에 유의를 기해야한다”며, <경제학의 하이젠버그 원리(Heisenberg Principle of economics)>를 제안했습니다(양혜원 외, 2019 재인용). 물리적인 것들이 그러한데, 하물며 사회적인 것들은 그것의 (소위 객관적) 존재 자체보다는 관찰자와의 관계 또는 인식에 의해 그 존재성이 결정됩니다. 최근에는 예술의 가치 연구에서 “사회적 가치”라는 말이 흔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결국은 행정에 필요한 성과계측이나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주로 경제적 가치로, 정량적으로 측정하거나 환원하려고 합니다. 이런 측정은 예술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인식의 한계뿐만 아니라, 문화정책에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도 간과됩니다. 김세훈 교수는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가치측정 연구 경향 분석”에서 경제적 가치 측정이 “역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다고 나타날 경우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양면의 칼과 같은 성격”(김세훈, 문화산업연구 제15권, 2015)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치 이해하기(understanding value)와 영향 측정하기(measuring imp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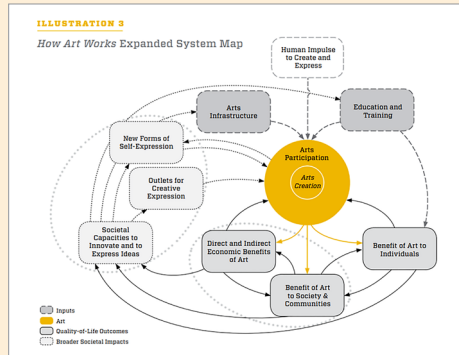
어쩔 수 없이 공적투자의 정당성 찾기가 숙제인 행정가들은 종종 “가치(value)”와 “영향(impact)”과 “효과 또는 성과(effect 또는 outcome)”을 혼용합니다. 일반시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예술의 본질적(intrinsic) 가치 보다 사회적 또는 도구적(instrumental), 경제적 “가치”라는 말로 예술에 대한 공적투자의 “효과”를 설명하려다 보니 말이 섞이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대한 도구적 가치가 충분히 계측되지 않으니, 인간사회 어디에선가 작동하고 있는 것의 당연한 사회적 가치를 굳이 증명해야 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런 프레임 안에서는 예술이, 그 효과가 아니라 가치 차원에서도, 예술향유자들에 의해 서만 수용되기 쉬운 “본질적 가치”로는 모자라서 모든 사회적인 것들이 투쟁으로 확보해야 할 “존재적(existence)” 가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프로젝트의 “효과” 측정연구자가 그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면 거기에 투입된 예술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야 할까요? 예술을 활용한 문화프로젝트의 효과는 그것을 기획하고 실행한 주체의 역량과 상황에 따라 발현되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Klamer가 지적하듯이, 그것을 측정하는 계측자가 잘못 선택되었을 수도 있고, 양자물리학의 하이젠버그 원리대로, 효과를 측정하는 순간 그 가치는 사라지거나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치”는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빠르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계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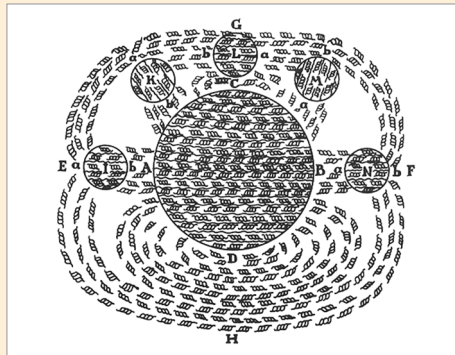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계적 세계관의 한계

<예술 활용 문화프로젝트의 효과 측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NEA는 2012년에 시스템 이론(system theory)을 적용하여 예술생태계 안에서의 가치 생성과 흐름을 “이해”한 『How Art Works』(NEA, 2012)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에 근거하여 2017년까지 5년간 세부 분야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접근은 단기적인 효과 “측정”에만 목을 매는 연구보다 훨씬 본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결과로 내놓은 시스템 맵은 꽤 복잡해 보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인간의 합리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생각하고 그 위에서 기계적 세계관을 추구했던 데카르트의 한계를 지적한 글이 떠올랐습니다.

데카르트는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서 “마력”으로 이해되었던 자력을 본인의 기계적 세계관으로 기어이 설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무리한 상상을 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철학자의 저작인 『철학원리 : Principia philosophiae』에 “지구 내부에는 그 축에 평행한 많은 통공이 있으며, 한쪽의 극에서 나온 나사입자들이 통공을 통해 다른 극으로 자유롭게 흘러간다고 생각된다...”는(『과학의 탄생 : 자력과 중력의 발견, 그 위대한 힘의 역사』, 야마모토 요시타카 저, 동아시아, 2005, p.709) 어이없는 말들이 나열된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설명하려는 합리주의자의 아집 때문이었습니다. 바야흐로 현실화 될 양자컴퓨팅의 시대에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더 쉽게 사실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위에 엄연히 존재하고, 직관적으로 이해되지만 보이지는 않는 예술의 가치를 기어이 복잡한 시스템 맵이나 공식으로 설명한 지금의 문화경제학 연구노트가, 혹시 데카르트의 철학원리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예술생태계 시스템 지도(system map)
출처 | NEA(2012)



데카르트가 『철학원리』에서 자력의 원리를 설명한 그림
출처 | 야마모토 요시타카(2005)

검색이 아닌 인간의 대화로 예술의 가치 공유하기

챗-GPT는 자신이 학습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검색하여 확률적으로 적절한 말을 뽑아서 대화처럼 들려줍니다. 사람들은 그 내용의 진위보다도 검색을 대신한 대화라는 형식에 매력을 느낍니다. 제이컵 브라우닝 박사 등은 언어자체가 지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알파한 이해력”과 심지어 “언어자체의 한계”로 인해 인간처럼 말하지만 이 AI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합니다(“AI와 언어의 한계”, 제이컵 브라우닝·안 르쿤, 머니투데이, 2023.2.11). 하지만 보통의 인간들이 예술의 가치에 대한 알파한 이해라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소통하는 인간의 대화는 충분하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감히 인간 성현들을 갖 태어난 기계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공자나 소크라테스도 대화로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니, “제자들이 왜 시를 배우지 않느냐?”며 시의 효용을 조목조목 얘기한 공자의 대화를 떠올려 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몸 없는 인공지능이 잘 요약해서 들려준 대답 속에 들어 있는 “경제적 가치”는 없었습니다. 공자는 예술의 가치를 몸매 “체득”하고 스스로 시를 노래하며 거문고를 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子曰, 小子 何莫學夫詩? 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

(시는) 감흥을 일으키고, (정치와 사물의 원리를) 살펴보게 하며,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게 하고, (풍자로) 학정을 비판하고, (인륜을 배워) 가까이는 부모를 섬기고 멀리는 임금을 섬길 수 있으며, (다양한 자연을 비유하고 묘사한 시에서) 날짐승, 들짐승,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해준다.

- 논어, 양화(陽貨) 제9장 -

H 공공정책에서 혼용되고 있는 "가치(value)", "영향(impacts)", "효과(effect)"의 개념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문제점을 설명해줘

1 가치(value), 영향(impact), 효과(effect)는 모두 공공정책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value)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대상이나 현상이 지니는 긍정적인 측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 유산은 우리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나타내며 지역 사회와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향(impact)은 어떤 정책, 프로그램, 혹은 활동이 다른 대상에게 미치는 결과를 말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의 교통 정체로 인한 대기 오염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효과(effect)는 특정한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가치

network error

필자와 챗-GPT의 대화 모습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필자의 질문에 대답이 지연되기도 하고 답변의 글자 수 제한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논문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도 있었다.
출처 | 오픈AI 화면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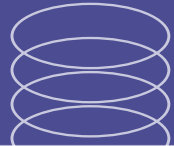
• 세계는 지금 •



창조도시 요코하마와 지역민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드는 코가네초

한 태 호

코가네초 에리어 매니지먼트 센터
국제교류 레지던스 프로그램 담당



요코하마의 역사와 창조도시 요코하마

일본의 '요코하마'라는 도시를 상상한다면 여러 가지 대표적인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일본 최초의 개항도시, 서양문물이 들어온 일본의 관문, 또는 한국의 중장년층도 많이 알고 있는 노래 '블루라이트 요코하마' 등이 생각될 수 있다. 그렇지만 예전 도시의 상징성과 함께 새로운 요코하마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개항 150주년이었던 2009년부터 창조도시 요코하마(Creative City Yokohama)를 정책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며 성장하고 있는 요코하마는 문화와 예술을 통한 새로운 도시의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창조도시 요코하마 프로젝트와 발맞추어 함께하는 코가네초 지역의 변화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끌어 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요코하마와 코가네초 지역

요코하마는 1859년 일본의 개항 이후 일본과 외국 간 교류의 문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862년 해군기지가 설치되면서 더욱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이후 요코하마는 일본의 주요 국제적인 무대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지만 발전을 거듭하며 근대의 모습을 갖추었을 쯤,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의 발생과 2차 세계대전의 말기 미국군의 도쿄대공습으로 도시의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폐허가 되었으며 힘든 복구의 시간을 겪게 되었다. 전후 일본의 역동적인 성장과 함께 요코하마 또한 발전을 거듭하면서 일본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시가 되었다.

이 도시의 중심에 코가네초 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에도 시대의 코가네초 지역은 오오카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물류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요코하마에는 미군 해군 베이스 캠프가 간나이 및 이세자키 지역에 걸쳐 요코하마 안의 광범위한 지역을 강제로 점거하였으며 당시 생활터

전에서 쫓겨난 원주민들은 현 노게야마 및 코가네초 지역으로 강제적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당시 노게야마 및 코가네초 지역에는 오랜 전쟁으로 일자리를 잃은 많은 노동자들이 지역에 모여들게 되었다. 또한 당시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선술집과 몸을 파는 여성도 지역에 등장하게 되었다. 점차 이러한 유흥 산업이 점차 성장하게 되었고, 마약, 인신매매, 조직폭력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코가네초의 지역문제로 지역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심각한 고통의 피해를 겪었으며, 이러한 도시의 어두운 부분이 요코하마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게 되었다.

이후 창조도시 요코하마 프로젝트를 통해 요코하마는 도시디자인 및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부분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에서 코가네초 지역을 창조적인 아티스트가 지역에서 머무르며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코가네초 지역의 예술과 함께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프로젝트는 요코하마 트리엔날레,뱅크아트 1929와 함께 요코하마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추적인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적, 수평적 프로젝트 진행방식

코가네초 지역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는 업다운 형식의 프로젝트가 아닌, 많은 지역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지역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 시민, 지역 상인회, 지역 학교의 학부모회, 경찰서, 요코하마시가 하나가 되어 지역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진행이 되었다. 이러한 지역의 변화의 움직임이 형성될 때 지역의 문제를 관리하고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어두운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비영리 단체가 형성하게 되었다. 코가네초 에리어 매니지먼트 센터는 지역에 예술가를 유치하고 예술가와 현지 지역민이 상생하며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코가네초역과 히노데초역 사이 케이큐 철도 고가 밑 지역에 갤러리, 아티스트 스튜디오 등 다양한 문화공간 설치로 연결되었다. 지역을 바꾸어 나아가기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아티스트의 적극적인 참여로 빠른 기간 동안 많은 변화를 이끌어 왔다.

코가네초의 상징적 의미

코가네초 지역이 현시점에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될 수 있다.

1. 지역민과 시, 전문가 모두가 하나 된, 오직 하나의 목적을 중심으로 노력해서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또한 이러한 활성화 노력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였다. 코가네초 지역 주민들은 지역을 발전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지역 문화 계획 및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2. 코가네초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는 다양한 성격이지만 아티스트와 창작 결과물인 작품, 관람객이 서로 연결되고 적극적인 관계형성을 통한 예술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예술기획의 실천이 코가네초에서 매년 진행되는 '코가네초 바자르'라 할 수 있다. 바자르 전시 기간 동안에는 코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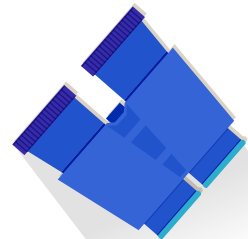
초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 초청 아티스트가 함께 하여 현대미술을 시민에게 소개하는 현대미술의 전시이벤트이다. 전시공간이 화이트 큐브형식의 일반적인 갤러리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전시공간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서 아티스트는 작품과 성격이 맞는 전시공간에서 예술적 실험이 가능하다. 아티스트는 이러한 실험적 예술 공간에 매력을 느끼며 아티스트의 작품에 많은 영감을 준다.

-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공간이다. 지역 시민, 아티스트, 상인회 등 모두의 니즈(needs)를 충족하며 공간들을 활성화 하였다. 유지, 보수를 통한 노력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모델이라 설명할 수 있다. 지역의 주민과 상인회가 주축이 되는 이벤트 행사가 가능한 공간, 아티스트에게는 창작공간으로 스튜디오는 국내외 모든 아티스트에게 열려있다. 다양한 수요자에 의한 항상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도가 극대화 되었다.

지금까지의 예술가, 전문가, 시와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킨 코가네초의 사례가 갖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지역과 예술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쉬운 방법은 아니다. 지역에 예술의 옷을 입히는 것은 창작이 갖고 있는 긍정적 에너지의 힘을 의심하지 않는 지역 시민 여론의 토양에서 싹을 틔울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한 모두의 다양한 노력이 함께해야 할 것이다.



Photo by Yasuyuki Kasagi



부산 오페라에 대한 진지한 걱정과 올바른 기대

강창일

부산금정문화회관장

1. [부산 오페라 축제 구상 연구] 보고서에 대한 단상

우리나라 오페라축제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가 없었던 점에서 보기 드문 전문연구서가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 보고서로 지난 2022년 12월에 출간된 사실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

해양수도를 자처하는 부산광역시가 내세운 문화예술 아이콘 오페라하우스 건축 공정률 약 35%를 보이는 시기, 극장 건축 하드웨어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매우 필요한 <부산 오페라 축제 구상 연구보고서>가 1년여 간의 연구조사 끝에 결실을 보게 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172쪽의 연구보고서는 먼저 연구의 필요성부터 공연예술 환경 및 동향 분석과 국내외 오페라 관련 축제를 살폈다. 그리고 공연과 오페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 회의를 거쳐 설문조사 결과분석 제언도 담아 오페라 축제 프로그램(시즌) 구성 콘셉트 및 운영전략을 핵심가치별로 요약하고 7대 중점 구상별 세부 프로그램까지 제시하였다.

지난 수년간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외 사례조사와 분석에 의한 심층적인 논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해외 대표축제와 내용 분석을 통한 부산 상황에 맞는 예술경영적 측면에서 오페라하우스 운영과 프로그래밍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경남 지역 내 오페라극장 건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지침서로서 역할을 다하고 해외 오페라축제의 성공요인을 분석해 부산 오페라 축제 운영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을 나름대로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축제의 사회적 사명을 부산 오페라하우스 프로그래밍 다변화를 통한 동아시아 종합예술로서 오페라 축제의 장을 개최하는 것으로 설정, 이를 기반으로 10년 이상 지속가능한 축제를 유지하면서 “부산, 모두를 위한 종합예술의 전당”으로서의 비전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2. 제작극장으로서 최정점에 있어야 할 부산오페라하우스 운영과 안팎의 기대

이어서 전문가 소수를 위한 프로그래밍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연친화적 개방 관점에서 부산 지역성이 결합한 문화관광 상생협력의 세부전략을 제시했다. 해양연계관광, 오페라하우스 투어, 북항과 원도심 연계투어 등은 오페라축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좋은 제안으로 여겨진다.

부산오페라하우스가 제2의 도시 오페라(무용) 전용 극장으로서, 현재 국립 오페라단의 제대로 된 역할 부재에 따른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길 바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립오페라단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작 가장 중요한 자체 오페라극장을 가지지 못한 것은 국가의 명확한 문화예술에 대한 청사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복합공연공간의 으뜸인 오페라하우스는 극장의 설계, 운영체계, 방향성, 예산, 인력 등의 정책 수립에 있어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성악가들이 없으면 공연을 못 한다고 할 정도로 유럽 본고장에서 한국 성악가들의 위상은 높아져 있다. 그럼에도 우리 오페라계는 성악가를 제외한 △창작오페라의 세계화 △연출·대본가·디자이너 등의 자체 양성 △오페라 전문합창단 운영 등 전문인력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전용 오페라극장 부재 △기관장 교체 때마다 변하는 운영시스템 △공연자료들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오페라는 모든 예술장르를 포함하는 종합예술이다. 도시, 국가의 문화적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르가 오페라이며 오페라극장을 보면 도시의 문화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서구 유럽의 경우 오페라단과 오페라극장의 용어가 따로 쓰이지 않는다. 오페라극장 자체가 오페라단이며 지역마다 존재하는 오페라하우스 자체가 국(공)립 오페라단이다.

그런 면에서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출발에 상당한 기대를 가져본다. 국내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공연을 제작하는 단체이자 극장이 되어 우리나라 예술을 견인하는 제작 공공극장으로서 자리매김이 되길 바라는 안팎의 간절한 시각이 상당하다.

3. 오페라하우스의 전문성 확보 및 오페라 시장 형성과 마케팅 인프라 구축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 공연장들이 복합공연에 용이하도록 다목적홀로 되어있다. 오페라피트 크기, 턱없이 적은 분장실 규모 등을 볼 때 설계 단계부터 공연예술가들, 예술작품에 대한 배려는 상당히 떨어져 안타깝다. 종합예술을 지향하는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무대 규모와 장치, 백스테이지, 편의시설 등에서 공연자들이 움직이기에 편리한 동선을 고려한 공간 배치와 여유로운 건축시공이 실행되어야 마땅하다.

부족한 전문인력 문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상당수 지자체 공연장에서 전문인력을 너무 적게 선발해 배치하고 있다. 전국에 유행처럼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공연시설까지 운영하는 바, 전문인력을 충분히 배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경영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다 보니 그나마 수익이 많이 나는 대형 뮤지컬이나 대중가수 공연에 상당 부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있어 ‘문화재단이 좋으나, 지자체 직영이나 아니면 국립극장 같은 책임운영기관이 좋으나’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전체 의견은 아니겠으나, 후원협찬이 가능하고 전문인력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는 재단에 대한 환상을 가져 전국에 수많은 지역 문화재단들이 탄생했지만, 적은 공연 예산, 프로그램에 대한 지자체의 간섭, 낙하산 인사 등 많은 부분에서 독자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직영이나 재단이나 이런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 예술에 대한 전문성 겸비를 비롯해 건전한 마인드와 리더십, 헌신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오페라하우스(극장)의 건립만큼 중요한 게 있다면 이후의 운영이다. 개관 초기 우수 기획공연이 관객 관심을 이끌 수 있으며 오페라 인구를 늘려가는 가장 큰 자산임은 자명하다. 수익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우선 충분한 예산과 남다른 기획·제작으로 우수공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운영에 있어서는 해외사례와 같이 협찬후원, 티켓팅에 의존한 수익금 발생이 순조롭지 않기에 지자체 예산확보가 필수조건이 되어야 한다.

또한 수지출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오페라하우스를 뮤지컬과 대중예술의 대관극장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전자음향에 극장을 내주게 되는 순간부터 극장의 음향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오페라하우스의 고유 정체성을 상실한다. 물론 지속적인 기획공연과 티켓판매가 이루어지고 협찬후원과 기부도 유지해야 하고 문화관광상품과 연계하여 공연들의 객석점유율도 배가시키는 부단한 노력도 기본이다.

부산이 상대적으로 서울과 대구에 비해 클래식 문화와 극장 인프라가 약한 것은 사실이다. 부산보다 도시가 작은 대구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많은 예술인들의 활동, 음악대학과 유명 교수진들의 활약, 지역의 문예회관들의 부단한 노력, 시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지금은 전국에서도 가장 클래식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점에서 배울만하다.

부산에 오페라하우스가 건립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관객이 들어차고 공연장이 잘 운영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페라하우스 홍보는 기본, 시민들이 종합예술로서의 오페라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오페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모든 문화회관과 공연장들이 힘을 합하여 오페라·클래식에 대한 관심과 붐업 조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부산의 문화관광상품과 연계한 공연과 축제 등의 마케팅 개발로 외부인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필요하나 우선은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자리잡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제작에 있어서는, △어린이·학생들을 위한 오페라나 초심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레퍼토리 개발 △갈라콘서트·소규모오페라 등 각 세대별, 장르별 다양한 제작이 이루어져 맞춤형으로도 선보이며 관객을 쉽게 끌어들이 수 있는 다양한 기획과 마케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해외와 수도권외의 우수한 인력들을 유입시켜 좋은 공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나 반드시 △지역 및 지역출신들의 음악가들과 단체가 참여하는 공연 제작 쿼터제 도입 등 지역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안전장치들도 필요하리라 본다.

4. 부산오페라하우스, 명실상부 오페라하우스 모범적 운영의 효시가 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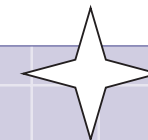
바야흐로 해양수도 부산광역시와 오래전부터 건립을 꿈꿔왔던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완공이 몇 년 후면 현실화된다. 안팎으로 고난의 기간을 거치면서 내실을 다지고 우리나라에서 명실상부한 오페라하우스의 모범적인 운영의 효시를 선보이고 문화예술적 수준을 드높이는 공공극장으로서 우뚝 서기를 기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부산 오페라 축제 구상 연구보고서>가 부산 문화예술계에서 두루 값어치 있게 쓰이길 앙망하는 마음이 어찌 나만의 마음이겠는가!



부산문화재단

- ‘실감’나게 돌아온 조선통신사 역사관(1.5)**
 부산문화재단(이하 재단, 대표이사 이미연)은 「문화재청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조선통신사 역사관을 개편, 두 달여 만에 재개관했다. 2021년도 2층 미디어 갤러리 ‘통邇’에 이은 두 번째 개편이다.
- 한일 양국 대학생 新조선통신사가 되어 교류하다(2.20)**
 재단은 일본 조선통신사 연고지역인 시즈오카시의 국제교류협회와 함께 한일 양국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인 「유스(Youth)조선통신사 한일 대학생 교류사업」을 2월 19일(일)~23(목) 4박 5일에 걸쳐 진행했다. 한일의 양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양국 대학생 29명이 참가하여 ‘新조선통신사 -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창조하자’라는 주제로 부산의 각 기관을 방문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리더십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 부산문화재단, 역대 최대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예산 확보(3.10)**
 재단은 올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역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지원예산이 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부산시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관련 예산 7억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2018년 국비 9천만 원으로 시작하여 5년 만에 국·시비 10억 원을 달성하게 된 것이다.
- 시의성 있는 정책 동향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문화정책 제안 연구결과 발표(1.25)**
 재단 정책연구센터는 2022년 장애예술, 오페라 축제 구상, 부울경 문화분권, 생활권 문화공간 등 시의성 있는 문화정책 동향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7종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 예술가들의 동지가 되어 줄 유희공간을 찾습니다!(2.20)**
 재단은 3월 17일까지 도심 속 유희공간을 발굴하여 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빈집활용 창작공간 조성·운영지원 사업」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을 모집한다. 본 사업은 급증하는 빈집을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변화시켜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 **우리나라 미술시장 매출액 1조 원 돌파(1.4)**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박보균)는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문영호)와 함께 2022년 미술시장 규모 추산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국내 미술시장은 코로나19, 세계 경제 위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초로 미술품 유통액 1조 377억 원을 달성해 2021년 미술시장 실태조사 결과인 7,563억 원 대비 37.2% 성장했다.
- **문화로 펼치는 지방시대, 지역 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한다(1.11)**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새 정부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책 대상인 각 지역 현장을 찾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전문가와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다. (중략) 이번 정책토론회는 1월 13일(금) 영남권(대구), 1월 18일(수) 호남·제주권(전주), 1월 19일(목) 강원·충청권 등 권역별 거점도시에서 총 세 차례 열렸다.
- **윤석열 정부, 역대 정부 최초 '예술인 복지 정책 기본계획' 발표(1.19)**
문체부는 1월 19일(목),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

번 계획은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되는 것으로, 「예술인 복지법(이하 복지법)」 제4조의 2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 **문화도시, 지역을 밝히는 로컬콘텐츠 발전소(2.23)**
문체부는 2월 23일(목), 서귀포 칼호텔에서 올해의 문화도시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를 선정했다고 밝히고, 2022년 문화도시 성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위원장 정갑영)와 함께 2022년 한 해 동안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 18개 문화도시의 성과를 점검하고,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최우수 도시로 서귀포시, 청주시, 춘천시, 완주군, 밀양시 등 5곳을 선정했다.
-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한다(3.15)**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에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술×기술 융합 창작에 도전할 예술인을 모집합니다(1.2)**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흐름 속에서 예술은 어떠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한 예술인의 여러 도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지원하는 사업 공모가 시작되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예술-기술 융합 창작단계를 지원하는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사업> 2023년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예술위, 다원예술TF 활동 백서 발간(1.10)**
예술위가 2022년 운영된 다원예술TF의 활동 백서를 발간하였다. (중략) 다원예술TF는 활동 백서를 통해 주요 정책 제언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다원예술 담당 위원 선임과 △다원예술소위원회 상시 운영, △다원예술 사업 전담부서 지정, △문화예술진흥법에 '다원예술' 명시, △중장기 지원시스템 마련 및 충분한 사업비 확보, △매개 지원사업 복원 등을 제안하였다.

강원문화재단

- **평창대관령음악제 양성원 제4대 예술감독 선임(2.9)**
평창대관령음악제를 주관하는 (재)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에서는 첼리스트 양성원을 제4대 예술감독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20회 음악제부터 평창대관령음악제를 이끌 예정인 양성원 예술감독은 오스트리아 무지크페어라인, 파리 샬플레엘, 뉴욕 링컨 센터, 카네기홀, 도쿄 오페라시티홀 등 세계 굴지의 유명 공연장에서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정명훈, 즈네덱 마칼을 비롯한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함께 연주해온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첼리스트이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행동 경남' 프로젝트 모집(3.3)**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UN의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문화예술·콘텐츠 분야로 해결해 나갈 참신한 프로젝트를 모집한다. 올해로 3년째 진행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행동 경남' 사업은 진흥원 자체사업으로 2021년 '코로나19로부터 회복', 2022년 '기후위기'로 추진되었으며, 2023년도에는 '공존과 균형'을 주제로 추진한다.
- **경남예술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예술인 모집(3.3)**
진흥원은 경남예술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경력형 일자리) 지원'과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과 참여기관을 각각 모집한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경남도 협력 사업으로 신중년 예술인을 도내 문화기반시설에 파견하여, 예술 협업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이다.

서울문화재단

- **이창기 대표이사,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제6대 회장 선임(2.1)**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한광연)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2월 1일자로 임기를 시작한다. 한광연은 지난 30일 전국 17개 광역문화재단 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23년 1차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창기 신임회장을 추대 선출하고, 신규 이사승인 등 주요안건에 대한 의결을 승인했다.
- **서울문화재단,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사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2.8)**
재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20만원 상당의 문화예술공연 이용권 <서울형 청년문화패스>를 오늘 4월부터 발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민관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서울문화재단-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교류협력 업무협약(MOU) 체결(2.16)**
재단이 2월 16일(목)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선옥)과 문화예술 진흥과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문화재단

• 문화도시 사업 간담회 개최(2.9)

울산문화재단은 2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경남은행 울산영업부 5층에서 법정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시는 지난 2022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비 75억을 지원받게 된다.

인천문화재단

• 인천문화유산센터, <인천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누리집 열어(1.18)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 인천문화유산센터가 인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인천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누리집을 만들었다. (주소: iharchive.ifac.or.kr) 이 누리집은 센터가 조사 수집한 인천의 역사와 문화유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 한국근대박물관, 인천광역시 최초 및 유일한 공립박물관으로 등록 완료(3.6)

재단 한국근대박물관이 인천광역시 첫 번째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됐다. 3월 2일 인천광역시와 인천문화재단에 따르면 한국근대박물관은 문학진흥법에 규정된 공립박물관 등록 기준을 충족하여 인천광역시 최초이자 유일한 공립박물관으로 등록을 완료했다.

• 인천문화재단 청년예술가들의 축제 <link. 바로 그 00> 개최(3.14)

재단에서는 3월 17일(금)부터 3월 26일(일)까지 청년예술가기획지원 '바로 그 00' 결과 공유회 <link. 바로 그 00>을 개최한다. 본 사업은 청년예술가들의 새로운 예술실험과 도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문화재단

• 손 안에 미술관 '메타버스 전시관' 개관(1.3)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은 지역 작가들의 인지도 향상과 효율적인 미술작품 홍보 마케팅을 위해 메타버스 가상전시관을 구축하고 기획전시회를 개최한다. (중략) 메타버스 가상전시관에는 전남 미술작가 6명이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전남의 환경생태, 역사 이야기 "6개의 시선, 전남 토포아보기 展"과 서울옥션 제로베이스 경매 참여작품 기록 전시, 도내 7개 시·군과 재단이 협력하여 추진한 성과 기록(사진, 영상 등)전시가 마련되어 있다.

충북문화재단

• 김갑수 충북문화재단 8대 대표이사 취임(1.5)

충북문화재단 8대 김갑수 대표이사가 지난 4일 취임했다. 김 대표이사는 취임 인사말을 통해 "문화예술 창작·매개·향유 간 균형적 발전으로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삶에 문화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금정문화재단

• 금정문화재단 '섯골문화예술촌' 입주예술가 공모(3.17)

재단(이사장 김재윤) 셋골문화예술촌에서 활동할 지역예술가 3명(3팀)을 3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문화예술 활동가 △기획자 △창작예술인 등 예술인 개인 혹은 단체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1년이며, 1회만 1년 연장할 수 있다.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 20



ISSN 2713-4113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발행일 2023. 03. 31. 발행인 이미연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 051-745-7205~8
www.bscf.or.kr 편집위원 김경화 송고성 이지훈 서승우 편집기획 조정윤 김수정 디자인 제작 올드뉴스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